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 명	박소진	학 번	201711519
------	-----	-----	-----	-----------

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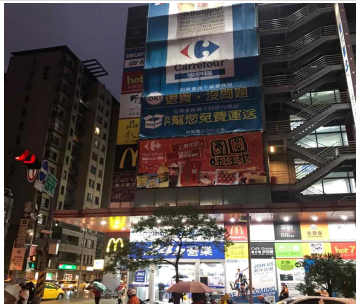
저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대만의 다양한 먹거리를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망고빙수, 닭튀김, 문어꼬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숙소 근처에 있는 시내에 가서 망고빙수를 먹었는데 왜 대만이 망고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만큼 망고빙수를 파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었고 빙수 뿐만 아니라 망고젤리, 망고과자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파는 제품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감귤이 유명하듯이 대만도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과일을 많이 홍보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의 야시장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야시장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음식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어꼬치, 버섯, 치즈감자 등을 먹었는데 대만의 특유한 냄새가 풍기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해 볼 수 없는 음식들이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야시장의 상인들은 안녕하세요, 얼마입니다 등의 기본적인 한국말은 할 수 있었고 깎아준다거나 묶어서 사면 더 싸게 해준다는 식으로 관광객들을 공략하기 위한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여행지 근처에 가보면 거의 세븐일레븐이 대만을 독점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간간히 패밀리마트도 눈에 보였지만 세븐일레븐이 대만의 최대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해결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삼각 김밥, 주먹밥, 라면, 샌드위치 등 요즘 HMR 시대를 잘 반영된 상품들이 있었고 1인 가구를 위한 상품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제일 놀라운 사실은 신선한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대만 편의점에서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테이블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혼밥족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만 편의점을 구경하면서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도 그에 맞게 상품의 다양화나 매장의 다양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쇼핑을 하기 위해 까르푸라는 곳에 갔는데 제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을 위해 꼭 사야할 것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과 라면들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역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일본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충분히 사올 수 있는 제품들이 대만의 까르푸에 많았고 그 나라의 특색있는 제품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마치면서 대만의 식품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고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의 식품시장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아쉬웠던 점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저는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식품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식품시장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회로 대만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막연하게 먹거나 놀고 오는 게 아닌 전공 관련 여행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러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공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고 사진도 찍어가면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두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떠나기 전부터 계획을 잘 세워두고 가서 그런지 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비가 계속 내려서 날씨가 안 좋았던 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서로 추억이라고 말하며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도 협동심을 잘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도중에 택시기사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니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공 여행도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서 매우 뜻 깊었고 이번 경험을 기회로 삼아 다음에도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